

구역성경공부

OCTOBER 2025

YSPC 영생장로교회
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해(창4:26)

제목/본문

그 리 스 도 께서 남기신 말씀

“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
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(요12:49)”

서론

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,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은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니라,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. 이 말씀 앞에 우리는 “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!” (마 27:54)라고 고백하게 됩니다.

본론

첫 번째 말씀: “아버지,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.....” (눅 23:34).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“용서해 달라”고 기도하셨습니다.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**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**입니다. 예수님은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,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며 죄 사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. “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.” 그 기도의 결과로, 오순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(행2:37-38). 예수님은 **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완전한 모범**을 보이신 것입니다(마5:44, “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”). 우리도 억울할 때, 상처받을 때, 그분을 따라 **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**이 되어야 합니다.

두 번째 말씀: “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,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” (눅 23:43).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. 예수님 곁에 두 명의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처음엔 예수님을 욕했지만(마27:44; 막15:32), 나중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.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. “예수여,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.” 그때 예수님은 즉시 약속하셨습니다. “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” 예수님께서 **언제나** 가장 비참한 죄인일지라도 기꺼이 구원하고자 하십니다.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**언제나**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십니다!

세 번째 말씀: “보라, 네 어머니라” (요 19:27).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“이제부터 네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모시라”고 부탁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**십자가 위에서도 “네 부모를 공경하라”는 제5계명을 지키셨습니다.**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, 예수님이 살면서 뿐만 아니라 **죽음의**

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. 이러한 세 번째 말씀이 없었다면 ‘죄인을 위한 그분의 죽음이 전혀 효력이 없었을 것’이고 ‘우리는 지옥에 있게 되었’을 것입니다(p243).

네 번째 말씀: “엘리, 엘리, 라마 사박다니?” (마 27:46). 이 말의 뜻은 “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”입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**가장 깊은 고통의 외침**입니다. 이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,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셨습니다.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, 우리가 **결코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**였습니다. 그분의 고통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.

다섯 번째 말씀: “내가 목마르다” (요 19:28). 이 말씀은 예수님이 **인간으로서 실제로 느끼신 육체적 고통**을 보여줍니다. 그러나 단순한 육체의 갈증만은 아닙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의 **영적인 목마름**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. “우리가 목마름 속에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,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”(p247).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성경의 예언(시 69:21, “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”)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예수님의 **참된 인성과 말씀의 성취**를 동시에 보여줍니다.

여섯 번째 말씀: “다 이루었다” (요 19:30). 이 한 마디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.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,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**정죄 받지 않습니다**(롬8:1). “다 이루었다”는 말은 동시에 “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”는 뜻입니다.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, **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**입니다.

일곱 번째 말씀: “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” (눅 23:46).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**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**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.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시고,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뜻입니다.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, **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**(롬6:5-8). 그분의 손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.

토의질문

1.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 중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습니까? 왜 그렇습니까?
2. 예수님의 “다 이루었다”라는 선언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

결론

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**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**. 살아서나 죽을 때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(요7:46).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**큰 위로와 소망**을 줍니다. 사람은 죽을 때 남긴 말이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듯, 예수님의 말씀도 그분의 삶 전체를 보여줍니다.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얻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